

투데이 칼럼

정직은 근육이다

1 990년 미국 화학회사 듀폰의 공장이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목장에서 집단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장주인은 듀폰이 근처에 엄청난 양의 PFOA(과불화유탄산)를 매립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듀폰이 페타펜 코팅제 테플론 속 화학 물질인 PFOA를 비롯한 화학물질들을 불법적으로 방류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듀폰은 이 물질들이 인간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단 방류를 계속했고, 해당 물질에 노출된 700만 명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6억7100만 달러(약 8900억원)의 배상금을 판결 받았습니다. 영화 <다크워터스>의 소재가 된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듀폰은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직적인 암묵을 선택했고, 임직원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수많은 위법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듀폰은 오랜 역사와 전통,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서 갑작기만 남은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리더십 컨설턴트 론 카루치



이 학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는 저서 <정직한 조직(센시오 출간, 원제 TO BE HONEST)>을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비교적 똑똑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집단이 그렇게 쉽게 자기 자신과 직원, 주주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리더들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 그들은 서로에게 정직할 수 없었을까?”

미국 4대 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웰스파고의 몰라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2014년부터 수천 명의 직원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56만개의 신용카드 계좌를 만든 것을 비롯해 가짜 예금계좌 200만개를 개설하고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았습니다. 40만 달러를

들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랍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협력 없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거짓으로 대응하게 할수록, 직원들은 악의 구렁탕으로 빠져든다.” 그로 인한 해악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0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 조직적 불공정이 우울과 불안, 베이웃(burnout, 극도의 피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직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너무나 흔히 ‘진정한 변화’라는 어려운 작업을 회피하고, 보기에 쉬운 해결책을 향해 손을 뻗는다. 변화의 결모습 위에 놓지를 하려는 이런 허울뿐인 시도에는 이름이 있다. ‘목적 세탁’이다.”

카루치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직한 문화가 뿐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작원이 옳은 이유로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일을 주제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정직이라는 강력한 역량이 탄생한다.”

회사의 행동과 말이 다른 게 직원

들은 고객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은행으로 알려졌던 웰스파고에서 어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사 결과 대외적으로 선언된 것과 내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어긋남과 ‘달성 불가능한 인센티브’ 조건과 낮은 심한 압력과 치열한 영업 문화가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카루치는 “우리 몸의 근육처럼 정직이라는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직은 근육이다. 당신이 힘을 키워야 하는 역량이다.” 우리가 정직한 조직을 실현하고자 할 때 운동 후 근육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목적을 방해하는 통증을 미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특히 우리가 부족할 때 신경을 쓰고, 영양도 공급하고, 강하게 유지되도록 움직여서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설

전주콩 지역특화작목 재편 시급

전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콩나물은 서민의 흔한 찬거리에서 시작하여 향토 별미로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통통하게 자란 콩나물을 콩비

린내가 나지 않게 짜내 양념간장에 무침면 맛이 있다. 고슬고슬한 콩나물밥을 지어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양념간장으로 살살 비벼 먹으면 진수성이 부럽지 않다.

국 · 나물 · 밥 · 잡채 · 볶음 · 김치 등에도 이용되고 전주의 콩나물밥 · 비빔밥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이다. 전주 콩나물 품종은 지역특화작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전주 대표 농산자원의 노지 재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스마트 재배 기술 연구 및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재배 농가 역량 강화 교육 등에도 나서야 한다. 신기술 · 신品种 개발 등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일이 중

요하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신品种 개발 및 기능성 소재 발굴에 힘쓰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때이다. 콩나물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콩의 원산지가 만주지방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역사가 오래일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에는 고려 고종 때 대부황(大豆黃)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두아채(豆芽菜)라는 이름의 조리법도 있다.

콩나물에는 아체가 귀한 겨울철에 귀중한 비타민의 공급원이 되어왔다. 콩나물 100g에는 16~20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으므로 이것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다. 전주 지역 콩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 위해서는 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주 해피파이어 합창단 대상

제24회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열리고 있는 동의보감촌에서 ‘제6회 경남도지사배 전국 황노화 실버 합창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18개 합창단이 참여했다.

행사는 산청군 동의보감촌 잔디광장 산청한방약초축제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 참가팀들은 키와 재능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7080세대의 친란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유심조 공연과 송파구립실버합창단(5회 대상) 축하 공연도 진행됐다.

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전주 해피파이어가 선정돼 도지사 상장과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전주 해피파이어는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자 모였다.

노래하고 그 힘으로 지역사회

에 여러 모습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노래하며 서로 어우러지는 기쁨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한다.

단장 유영오, 지휘자 최관, 반주자 이영신씨가 맡고 있다.

어르신들은 음악이라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음악적 공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주 해피파이어 실버합창단은 정기연주회 개최 및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합창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한편 산청군은 10월 2일 동의보감촌 잔디광장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해 추진한 행사에는 노인회 회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 노인 및 복지 공로 유공자 24명에 대한 표창도 전달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부부싸움에 노출된 자녀, 정서적 불안정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부부간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언행, 외부적인 요인, 사소한 문제 등으로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여 이러한 부부싸움 상황에 자녀들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유기, 방임 등 있는데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간 다툼과 폭력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아동의 정서적인 학대인 밸딜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에 헤드 부모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회초리 등으로 아동의 생활 지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훈육이란 이름의 변질된 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민법상의 부모의 징계권도 없어졌다.

최근 법원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인 밸딜을 저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전문가들은 단발성 행위보다는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학대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사람의 결과이며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인격체인을 평신하고 가정이 공포의 장소가 아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부부 상호 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상담소나 다양한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를 방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홍재현진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다저스, WS 5차전 역전승 거두고 ‘우승’



LA 다저스 선수들이 10월 30일(현지시각) 미 뉴욕주 뉴욕의 앙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WS·7전4승) 5차전에서 뉴욕 양基스를 꺾고 정상에 오르며 흐름하고 있다. 0-5로 뒤집어진 다저스는 7-6 역전승을 거두고 4승1패를 기록하며 역대 8번째 정상에 올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